

| 2013년 주님의교회 표어 |

일어나라 (이사야 60:1)
빛을 발하라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_ 롬 12:15

| 오늘의 말씀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
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
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 _ 빌 2:5-7

2013년 6월 23일 주일 제 320호

발행인 : 박원호 | 편집인 : 김학원 |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 02-416-5181~2) | 편집 : 함즐함울팀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www.pcltv.org

‘비움’

스물다섯 해, 주님의교회가 지켜온 것.
2013년 6월 26일로 주님의교회가 창립25주년을 맞는
다. 교회의 주인 자리에서 사람을 비우고, 크고 멋진
교회 건물에 대한 욕심을 비우며, 주님께 드리는 헌금
에서 이름을 비웠던 바탕은 아마도 ‘비움’의 정신일 터
이다.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들과 같이 되셨”(빌 2:7)던 것을 본받아, 공동체와 이
웃을 섬겨온 지난 25년이였다. 그동안 주님의교회가
이룬 모든 것이, 주인이신 주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시
며, 몸소 행하신 것임을 여기에 고백한다. **함즐함울**

창립25주년 기념사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며

올해로 주님의교회는 창립 25주년을 맞습니다. 25년이 특별한 해는 아닙니다. 다만 25라는 숫자가 매듭이 지어지는 숫자라서 우리도 이때쯤 교회역사에 하나의 매듭을 짓고 미래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바람에서 우리는 교회창립 25주년 역사책 편찬, 정신학교 교육공간 건축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에 다시금 헌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든 창립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함께 고백하며 그 뜻에 함께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교회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갈 바를 모르지만 순종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머물기로 결단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를 결정했고, 무기명 헌금을 실시했고, 예배당 건물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은 떠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25년 전 우리가 정들었던 곳을 떠난 것은 그곳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소망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거룩한 성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길이 우리로 거룩한 결단을 하게 했습



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머물렀던 곳에서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주고 우리의 자량이 되고 우리의 보장이 되는 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25주년을 맞으면서 새롭게 다짐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려고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먼저 앞장설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선포할 것입니다. 또한 작은 교회 돕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국제교육선교센터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신앙적 헌신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이 땅에 기쁨을 이루겠습니다!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헌신과 결단에 함께 참여하길 소원합니다.

박원호 담임목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주님 말씀에 따라,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주인 삼은 주님의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1988년 6월 26일, 당시 이재철 전도사와 성도 48명이 모여 소박한 창립 예배를 올린 주님의교회의 출발은 남달랐습니다.

한국 사회가 오랜 정치적 질곡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도약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과 교회 건축



을 목회의 목표로 삼기 시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잃어 버린 시대에, 초창기 주님의교회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되는 교회’, 곧 ‘교회 본질의 회복’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창립 전야에 있었던 기도모임에서, 공동체 전원이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서원했습니다. 재정의 50% 이하로 교회 살림을 하겠다는 내핍과 검약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비움’의 정신으로 지내온 25년

이에 따라 교회 건물을 따로 소유하지 않고 공공건물의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드러내지 않도록 무기명 헌금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주인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교역자와 향존직의 임기제를 만들었습니다. 장로가 되면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일로 섬기는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1996년 3월에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당을 정신여고 4층 강당으로 옮겼습니다. 정신여고와 주님의교회 사이에 강당 신축과 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창립 10년이 되던 1998년 11월에 대강당인 김마리아홀을 지어 정신여고에 기증했습니다. 주님의교회가 새로 몸담은 정신여고 대강당 건물은 노아의 방주를 본보기로 삼아 설계되었습니다. 1998년에 초대 이재철 목사가 임기를 마치고, 임영수 목사가 제2대 담임 목회자로 부임했습니다.

2003년에는 문동학 목사가 제3대 담임 목회자로 부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구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주님의교회 공동체는 지난 25년 동안 북한 선교와 지원, 국내와 해외 선교, 지역 복지 사업과

청소년 교육 지원에 헌신해왔습니다.

교회가 날로 성장하면서, 길가에교회, J주님의교회 등 형제 교회들이 새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2007년 박원호 목사가 제4대 담임 목회자로 부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가 되고자, 안으로는 신앙의 내면을 다시 세우고, 밖으로는 이웃 사랑의 삶을 묵묵히 실천하고자 힘썼던 지난 25년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교회의 겉모습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비워서, 그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려고 노력했던 25년이었습니다.



그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디서나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려고 애썼던 날들이었습니다. 시련과 갈등도 없지 않았지만,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아해보면, 주님의교회가 그 동안 이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 이루신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온 주님의교회의 25년을 맞아,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바르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창립 25주년 기념 설문 조사 / 주님의교회, 내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과연 ‘비움’을 실천하고 있는가?

함글함글에서는 주님의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주님의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주님의교회, 내일을 생각한다’라는 주제의 설문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고른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교역자, 장로, 권사와 안수집사, 성도, 청년으로 단위를 나누되, 각 단위에서 2012년 요람 수록 순서를 기준, 총 인원을 산술적으로 나누어 각 25명의 표본 집단을 선정하였습니다. 혹 연락이 안 되거나 교회를 옮긴 경우에는 그다음 분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단, 총 인원이 25명이 안 되는 교역자와 장로는 그 기간 내 응답이 가능한 전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후 그 결과를 합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으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 창립 정신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충분히 내면화되어 있지는 않을뿐더러, 교회 안팎의 생활에서 때로 잊고 있는 듯 보여	83.6%가 반성적인 응답 지난 2011년 함글함글에서 주님의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기도’와 ‘나눔과 섬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뽑은 바 있다. 또한 주님의교회의 설립 취지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6월, 주님의교회 공동체 총 10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립 정신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움’의 정신은 충분히 내면화되어 있지 않거나(61.5%) 상당히 많은 구성원이 원칙과 제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22.1%)으로 분석된다. 반면, 창립 정신이 거의 모든 구성원에게 충분히 내면화 되어	있으며 교회 안팎의 생활에서도 잘 실천되고 있다(10.6%)고 보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두 번째 문항인, 25년전 주님의교회 초기 구성원이 당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획했던 이와 같은 창립 정신과 제도에 더하여, 오늘날의 시대에 더욱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했다. ‘낮은 곳 향해 무명으로 헌신하기’가 34.2%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22.9%)와 ‘초대 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기’(21.9%)가 비슷한 지지율로 다음을 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의 내용을 연결해서 분석해 본다면, 현재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제도로	서 이미 정착된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케노시스의 삶 즉, 개인에게 큰 부담이 없는 제도의 측면에는 동의하며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자신을 낮추어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뜻을 내면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 특히, 생활의 많은 측면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주님보다 사람의 뜻을 우선하려는 경향이 존재함을 의미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창립 25주년을 맞은 주님의교회의 오늘, 과연 우리는 케노시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5면으로 계속 >
---	--	--	---

설문조사 문항

이 설문조사는, 남다른 뜻과 소망으로 창립되어 25년의 세월을 보낸 주님의교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래 세 문항에 대하여, 평소 생각하셨거나 느끼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 주님의교회는 창립 후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고, 재정의 절반을 대외 구제에 사용하며, 헌금은 무기명으로 하고, 주요 임직은 임기제로 한다는 등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금까지 소중하게 지켜 왔습니다. 이러한 창립 정신의 핵심은 아마도 ‘비움’ 일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큰 교회 건물에 대한 욕심을 비우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공동체에 드러내려는 마음을 비우며, 교회의 주인 자리에 대한 사람의 욕심을 비우되, 그 비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비움’을 통해 낮은 곳을 향한 주님의 지체가 되어, 자신보다 주님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움’의 정신이 현재 주님의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 모두에게 충분히 내면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 ‘비움’의 정신이 구성원 모두에게 충분히 내면화되어 있으며, 그런 정신이 전체 구성원의 교회 안팎의 생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나. 원칙과 제도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움’의 정신이 충분히 내면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일부 구성원은 교회 안팎의 생활에서 때로 이를 잊고 있는 것 같다.

다. 상당히 많은 구성원이 원칙과 제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움’의 정신도 생활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라. 잘 모르겠다.

2. 주님의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2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정치 경제적 환경도 바뀌었고, 시대 풍토도 변화했으며, 모바일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활 문화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편, 일부 교회의 교권 세습과 같은 기독교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외면들 때문에, 사회에서 기독교가 갖는 영향력은 갈수록 감소되는 추세인 반면, 영적 혼란의 와중에서 이단들이 세속의 욕망과 결합하여 갈수록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기

도 합니다.

25년 전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당시에 느꼈던 교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창립 정신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제도와 원칙을 만든 것처럼, 지금 주님의교회에 속한 구성원들도, 시대 정신과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적절한 가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원칙을 지키는 것에만 안주할 뿐,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믿음에 머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에서, 지금의 창립정신에 더하여,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덕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래에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가. 초대 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기

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다. 낮은 곳 향해 무명으로 헌신하기

라. 더 많은 기도로 영적인 생활하기

마. 기타

3. 앞으로 25년 뒤 창립 50주년을 맞을 주님의교회가 어떤 모습이기를 기대하시는지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립 25주년 기념 사업

주님의교회 25년사 편찬



주님의교회 25년사 역사편찬 자료 공람은 6월 중 계속 될 예정이다.

지난 6월 16일 주님의교회 로비 양 쪽 복도 입구에 “25주년 역사편찬 자료 공람”이라는 안내와 함께, 폴더에 가득한 백여 페이지의 목록들이 공람되고 있었다. <주님의교회 25년사>(가칭)의 부록으로 수록될, 각종 역사자료를 교인 모두에게 공개하고 이를 확인받는 단계이다. <주님의교회 25년사>는 2012년 7월 본격적으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필자를 선정하면서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이런 저런 구전과 흩어진 자료로 떠돌던 역사자료들을 모으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어,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사진, 파일들을 한 곳에 모으

고 정리하는 작업이 겨우 올 상반기에 마무리되었다. 한편 창립 초기 교회설립에 참여했던 성도들, 각종 사역의 현장에서 체계를 세우느라 헌신했던 교회 안팎의 관계자들을 탐방하고 구술 자료를 만드는 일 역시 병행되고 있다. “이 역사 기록 작업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필을 맡은 최영재 목사의 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편찬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함줄함줄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공간 건축 순항

주님의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정신학원에 증축중인 다목적 교육공간의 건축공사 공정율이 20%에 이르고 있다. 총 5개 층으로 구성되며, 도서관과 다목적 교실,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을 포함하는 복합 공간으로 건축되는 이 건물은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마치고 기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초공사중에 도서관의 공간구성이 변경되었고, 땅속에 묻혀있던 정화조의 크기가 기록과 달라 기초공사기간이 계획보다 길어졌지만 건물의 준공은 올해 11월말에 차질 없이 끝나게 될 예정이다. 계단강의실 형태의 도서관으로 공간이 변경되면서 서고, 열람, 멀티미디어, 강의, 학습 등 다양한 교육공간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줄함줄



6월 15일 현재 약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공간 현장. 앞에 보이는 계단식 공간은 이 건물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이다. 열린 강의실 형태여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말 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섬기는 소박한 ‘비움’의 삶

내일을 위해 필요한 우리의 자세

25년뒤 주님의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은, 곧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의미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다양했다. 다만 지금의 창립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소망은 여전히 많았다. 제도 자체에 대한 율법화가 아니라, 제도의 내면에 있는 창립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의식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도 했고, 기존 교회와의 차별화보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반성이 많았으며, 창

립정신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 보다는 창립정신이 성도들 개인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루었다.

낮은 곳을 향해 다가가서 약자, 소수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하기도 했고,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부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일침도 없지 않았다.

25주년에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비전을 세웠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대부

분 거대교회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교회가 잘한 일이라도 이를 드러내고 자랑삼는 일조차 삼가야 한다는 아픈 지적도 있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제7대 담임목사를 모시고, 현재의 청년과 30대가 주축을 이루되, 송과, 잠실 등 여러 학원의 강당에 분립 교회가 만들어져서 대형 교회의 폐단을 방지하는 안까지 제시되기도 했다. 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뼈아픈 반성과 소박한 소망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 본보기 되어 주신 ‘비움’의 삶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함줄함줄

기념행사

창립 25주년 기념 전교인 사경회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사는 성도들이여”



창립 25주년 기념 전교인 사경회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저녁 7시 20분에 주님의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1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추적 앞에 항복하는 영혼”(시편 139:1~4), 2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천사같은 성도들”(시편 103:19~22), 3일은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세우는 재

건세대 성도들”(이사야 58:12)의 주제로 펼쳐집니다. 강사를 맡은 김희권 목사는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일산 두레교회 담임목사와 독일 튀빙겐 대학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복음주의 청년잡지인 <복음과 상황>을 펴내고 있다.

함줄함울

창립25주년 항존직 임직식
나를 보내소서



2013년 항존직 임직식이 6월 23일 3부 예배 때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로 4명, 권사 16명, 안수집사 18명은 2012년 항존직 선거에서 피택되 이후 피택자 교육을 마쳤으며, 이날 안수를 받고 항존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7면 참조)

창립 25주년 기념 음악회
“천지 창조”

창립 25주년 기념 음악회가 시온찬양대 주관으로 6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펼쳐진다. <천지창조>는 영국의 시인 리들레이가 구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실낙원>을 바탕으로 쓴 대본에 하이든이 곡을 붙인 오라토리오이다. 천지창조의 과정을 나누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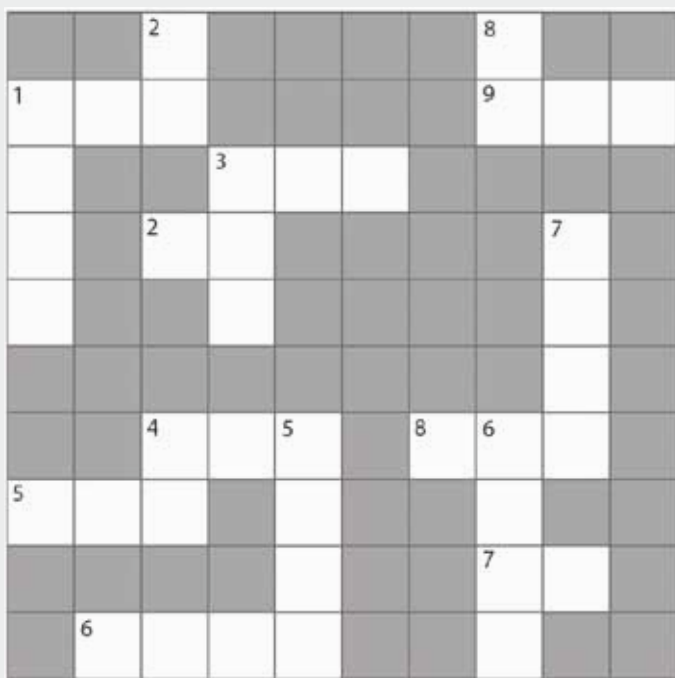
창립 25주년 기념 전시회

사진으로 본 주님의교회 25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1층 앞마당에서는 주님의교회 25년을 돌아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1988창립 당시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는 주요 사진 30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함줄함울

말씀따라 가로세로 _ 사무엘 하편



지난호 정답 - 가로 1.베냐민 2.블레셋 3.엘가나 4.아비아달 5.미스바 6.아비가일 7.아말렉 8.순중 9.기름 10.라마나뭇
- 세로 1.베들레헬 2.암나귀 3.엘리아살 4.아기스 5.사십일 6.아히멜렉 7.종기 8.요나단

가로

1. 요압의 동생으로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한 명은?
2. 하나님의 궤를 모시던 아비나답의 아들로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동행했으나 궤를 붙드는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이 치신 사람은?
3.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으나 사울이 죽은 후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섬기다가 배반한 사람은?
4. 다윗이 반역한 아들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다윗이 왕위를 되찾았을 때 용서를 구했던 사람은?
5. 우리아의 처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낳게 되는 사람은?
6.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 다리를 절었으며 다윗의 상에서 식사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은?
7. 다윗이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책망했던 선지자는?
8.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도왔으나 다윗의 용서를 받았고, 이후 요압에 의해 죽임당하는 사람은?
9. 다윗의 아들로 아버지에게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한 사람은?

세로

1. 다윗의 모사였으나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한 그의 아들을 도와 계락을 찢던 사람은?
2. 다윗의 친구로 다윗이 아들의 왕위 찬탈로도 피하였을 때 거짓으로 아들 편에 붙어 계락을 세워주고 다윗을 구한 사람은?
3. 요압의 동생 중 하나로 들노루같이 빠른 발을 가졌으나 패하고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다가 창에 찔려 죽는 사람은?
4. 사울 집의 시종이었고 다윗의 명으로 요나단의 살아남은 아들을 섬기게 되는 사람은?
5.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운 사울의 아들은?
6.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심지로 삼은 곳은?
7. 다윗이 말년에 무엇을 행한 잘못으로 이스라엘에 3일간 전염병이 돌았는가?
8. 다윗의 군대장관으로 거의 모든 싸움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은?

2013년 신임 항존직을 소개합니다

2013년 6월 23일, 창립주일 예배에서 신임 항존직으로 장로 4명, 권사 16명, 안수집사 18명이 안수를 받았다. 2012년 전 교인의 선거를 거쳐 선출되어, 앞으로 교회 안팎의 사역 현장에서 큰 몫을 담당할 이들을 소개한다.

■ 장로



노봉옥



정종국



강진식



이용수

■ 권사



윤성숙



엄성임



김영희



이송희



손정아



원옥윤



이준숙



김영남



이혜자



우현숙



홍성현



심미숙



김신정



유혜경



유희정



송정애

■ 안수집사



김충권



석관징



김건홍



이형구



정의영



최오섭



신영백



이명기



이승원



안성봉



김하방



권영식



이종만



정해천



김정래



김병연



안경상



최영인

추모관 사업 협약 체결

유토피아 추모관 현판식 감사예배



주님의교회 성도와 가족들을 위한 봉안시설인 '추모관' 사업이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213-1 유토피아 추모관과 협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는 6월 28일 오전 11시 유토피아 추모관 현장에서,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와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추모관으로 사용될 유토피아 추모관 안 궁전관 2층에, 주님의교회 전

용으로 800여 기의 봉안 시설이 완료되었다.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옥외 시설인 수목장, 잔디장, 가족안치단, 산골장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사용 범위는 성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형제 자매이며, 봉안단의 배치는 소천 또는 가장한 일시 순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순서에 따라 안치하는 원칙을 정하여, 혹시 위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도록 했다.

이상욱 안수집사

당회 소식 <6월 의결 사항>

- 2013년 예산추경안 통과하기로 하다.
- 여수 애양원 성산교회 이광일 목사 지원을 7,000,000원으로 하다.
- 2013년 하반기 주방 팀장 선정은 대안을 찾아보기로 하고, 없을 시에 자원한 박대길 장로로 담당하기로 하다.
- 교육목회원 유치부 전보영전도사 안수주기로 하다.
- J주님의교회 전세 임차 보증금은 J주님의교회로 주기로 하고, 이호목사 사택 임차 보증금은 환입 원칙으로 하고 2014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 뉴질랜드 주님의교회에 대한 형제교회 건은 형제교회임을 재확인하다.

교회 사역 일정

- 6.23(주) 창립주일(25주년), 애국주일
- 6.25(화) 예친사 종강
- 6.26(수) 겨자씨 인도자 종강, 12단계 집중강좌 수료식
- 7.1 ~ 3(월~수) 전교인 사경회(강사: 김희권목사)
- 7.7(주) 비전트립 파송식

어린이교육목회원

개안수술 지원비 전달



어린이교육목회원에서는 지난 6월 1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을 방문하고, 지난 5월 5일 무지개잔치 나눔장터에서 어린이들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기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년부 박솔지, 초등부 김현서 어린이와 초등부

홍만우 전도사가 병원을 방문, 김선태 목사(실로암안과병원 원장)를 방문하여 개안수술 지원금으로 1,281,500원을 기증했다. 이 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안수술자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12단계 성경공부 집중강의 마쳐



지난 6월 15일, 12단계 집중강의를 종강했다. 이번 집중강의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이루어졌던 "12단계 성경공부"를 압축하여, 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청년과 장년들이 9개월간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다. 특히 토요일은 청년 중심으로 진행되어 총 3학기로 진행되었다.

청년 35명, 장년 30명 등 65명이 수료했다.

강의 이후 진행된 수료식 때에는 수료생들을 축하하며 다과를 나누었으며, 수료생들은 9개월 동안 열정적으로 강의한 박원호 담임목사에게 감사의 뜻으로 족자를 증정했다.

함글함글